

반도체

비중확대 (유지)

이 승 우

02 6915 5771
swleesw@ibks.com

R.A 이 양 중

02 6915 5666
yj.lee@ibks.com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화재

-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C2 팹에서 화재로 인한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은 어렵지만, 일단 단기적인 DRAM 공급 불안으로 DRAM 현물가격의 상승이 예상됨
- 경쟁사인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주가는 5.3 %, 3.3% 상승했고, 장비업체들 주가도 상승
- SK하이닉스에는 부정적, 삼성전자와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 주가는 긍정적 재료인 것 만은 분명
- 단, 회사측에 따르면 클린룸 내 장비에는 큰 문제가 없어, 조만간 조업재개가 예상되어, 실제 생산과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고 피해의 대부분은 보험으로 보상 받을 것이라 밝히고 있어, 좀더 설득력 있는 근거와 자료로 실제 큰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필요

What's the Fact:

9월 4일 한국시간 오후 4시 50분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C2팹에서 장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던 도중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1시간 반 만에 진압되었고 인명 피해도 없었지만, 시커먼 연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은 많은 우려를 자아냈다.

우시 C2팹은 SK하이닉스 DRAM 생산량의 약 절반 및 전세계 DRAM 생산의 약 15%를 담당하고 있는 대형 팹으로, 주로 PC 및 서버용 제품을 생산 중이다. 모바일 DRAM은 이천 M10 팹에서 생산된다. 시간적 문제로 DRAM 현물가격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뉴스가 알려진 이후 현물시장에선 재고가 사라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경쟁사인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주가는 각각 5.3%, 3.3% 상승했고,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와 램리서치 등 대표적 반도체 장비주들도 주가가 큰 폭 상승했다.

Analysis:

현지의 상황은 중국 공안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정확한 사태 파악이 어렵다고 한다. 시장에 여러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추측성 코멘트들뿐이다. 지금까지 회사측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해상황을 계속 파악 중이지만, 일부 매체가 보도한 가스 폭발 사고는 아니며, 화재가 옥상으로 연결되는 공기정화장치(스크러버)에 집중되어 연기가 많이 발생한 것이라 한다. 또한, 클린룸 내로는 연기가 유입되지 않아, 반도체 장비에는 큰 문제가 없어 조만간 가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단 현물시장은 다소 요동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상 문제로 전일 현물 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저녁 시간 이후 대만 현물시장에선 딜러들이 재고물량을 거의 거둬들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일단 단기적인 DRAM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IBK Take:

어제 밤 12시경 SK하이닉스 측의 2차 보도자료 발표 각각 8%대, 5% 상승을 기록 중이던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의 주가가 4%, 2%대로 내려앉았다. 이후 주가는 1% 정도씩 추가 상승하며 마감되긴 했지만, 피해규모가 우려했던 것만큼 크지 않다는 회사측의 즉각적인 대응이 그나마 시장의 불안감을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확한 분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이번 사건은 SK하이닉스에는 부정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대로 최대의 반사 수혜가 예상되는 삼성전자에는 주가 회복의 캐털리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 보도자료 대로라면 클린룸 내부의 반도체 장비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스크리버 장비나 펌프, 배관시설, 그리고, 외벽 및 바닥, 클린룸 공사 업체들의 수혜가 좀 더 현실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정확한 분석이 나올 때까지 일단 나머지 펌프 장비 업체들의 주가에도 일단은 단기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현장에서도 사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선부터 전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회사측의 신속하고 설득력 있는 시장대응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림 1. 전일 밤 12시에 배포된 SK하이닉스 측의 보도자료 전문

우시공장 화재관련 안내

2013-09-04

금일 당사의 중국 우시 D램 공장 화재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한국 시각 16시 50분경, 장비설치 공사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18시 20분에 화재 진압이 완료되었습니다.
- 피해상황은 계속 파악 중에 있으며, 인명피해는 경상수준의 부상자 1명이 있습니다.
- SNS 등을 통해서도 공장외부에 검은 연기가 크게 보이고 있는데 이는 화재가 옥상으로 통하는 공기정화시설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며,
- 현재, 클린룸 내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에는 큰 문제가 없어 조만간 조업을 재개하여 생산과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로, 피해의 대부분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파악되는 점에 대해서도 즉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SK하이닉스